

성서 기본 지식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基督教 教理 學習
教科書

학습 7
예수의 기원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www.korbible.net

학습 7: 예수님의 기원

- 7.1 예수에 관한 구약성서의 예언
- 7.2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 7.3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그리스도의 위치
- 7.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변론 22: 역사적 예수

변론 23: “하늘에서 내려온 자”

변론 24: 예수께서 땅을 창조하였는가?

변론 25: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변론 26: 떨기세탁

7.1 예수에 관한 구약의 예언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세웠다고 학습 3에서 설명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모두 그들의 후손인 예수에 관한 것이었다. 구약성서 전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이 복종해야 했던 모세의 율법은 예수를 설명하고 있던 것이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蒙學先生)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 3:24). 그 유월절에는 온전한 상태의 어린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해야 했다(출. 12:3-6).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었다”(요. 1:29; 고전. 5:7). 구약시대에 모든 짐승의 제물이 흠없는 것이어야 했던 것은 예수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것이었다(출. 12:5; 뱀전. 1:19과 비교하라).

메시아의 인격과 인간성에 관한 많은 예언이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그 예언들의 초점은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다.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계획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절은 그들이 그 예언에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아니한 탓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 몇가지를 추려서 나열하여 예언들의 정확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구약성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시. 22:1).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뱀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야웨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건지실걸 하나이다”(시. 22:6-8).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틀에 붙었나이다.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시. 22:15-16).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시. 22:18).

신약성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외치신 말씀이다(마. 27:46).

그 때에 유대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였다(마. 27:39; 눅. 23:35).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예언과 같은 말을 서슴치 않고 하였다(마. 27:43).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있었던 그갈증을 말한 것이다(요. 19:28).

이것이 사실 그대로 상세하게 이루어졌다(마. 27:35).

2 예수의 기원

특별히 시편 22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관한 광경을 예언한 것으로 그 22절은 히.2:12에서 인용되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시.69:8-9).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동포와 친가족에게 외인 취급당한 그의 감정을 묘사한 것으로(요.7:3-5; 마.12:47-49), 요.2:17에서 인용되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옵나이다”(시.69:21).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 있을 때에 일어났다(마.27:34).

이사야 53장은 그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며, 절마다 하나도 틀림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두절만 참고해보기로 하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사.53:7).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는 심문을 받을 때에 아무 대구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다(마.27:12,14).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사.53:9; 눅.23:53).	예수가 악한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으나(마.27:38), 부자의 무덤에 매장되었다(마.27:57-60)

구약성서의 “율법과 예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근본이라고 깨닫게 한 것이 신약성서이다(행.26:22; 28:23; 롬.1:2,3; 16:25,26).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였다(눅.16:31; 요.5:46,47).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며, 선지자들은 그에 관하여 예언하였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의 출생 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선재설(先在說)의 그릇된 거짓 교리는 그가 하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후손일 것이라고 반복한 약속들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하실 때에 예수가 이미 하늘에 존재하였다면,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출생한다고 그 백성에게 약속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가 그 백성의 혈통에서 나온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는 그 약속 전에 그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게 한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우리니,

예수의 기원 3

나는 그의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삼하.7:12-14). 이 문장의 시체가 미래시제로 씌어진 것에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약속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한다. 그 후손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 “야웨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位)에 둘지라”(시.132:11).

솔로몬이 먼저 그 약속의 일부를 성취하였지만, 그는 그 약속을 하실 때에 육신으로 이미 존재했으며(삼하.5:14),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다윗의 육신적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의 주된 성취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눅.1:31-35).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메시아를 일으킬 것이라”(렘.23:5).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예언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미래시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리라”(신.18:18).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를 그 선지자로 정의하였다(행.3:22-23). “보라 처녀(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된 것이다(마.1:23).

7.2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잉태와 그 탄생에 관한 기록은 예수께서 그 출생 전에 육체적으로 존재했다는 주장을 절대 허용하지 아니한다. 소위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한때 하늘에는 세분의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한 분이 두분을 그곳에 남겨두고 그곳을 떠나서 세상에 와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가 태아가 되었다는 것이다. 성서에서 하나님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체적 몸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체적인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는 ‘선재설(先在說)’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 혼잡한 신학설은 모두 성서와는 무관한 신화(神話)이다. 그리스도의 시작에 관한 성서 기록은 그가 형체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마리아에게 들어갔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것을 입증할 수가 없으므로, 그 삼위일체설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와 대화한 것이 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 그 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그녀는 동정녀였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4 예수의 기원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1:31-35).

예수의 출생에 있어서, 두번씩이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출생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다시 그 문장들에 “그가 큰 자가 되리라”는 등등, 미래형으로 씌어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예수께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에 이미 육체적으로 존재했다면, 그는 이미 큰 자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었다”(계.22:16).

마리아의 예수 잉태

성령(하나님의 호흡/능력)의 역사로,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없이 예수를 잉태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의 실제 부친이 아니었다. 성령이 어떤 인격체가 아닌 것을(학습 5를 보라) 알아야 한다. 예수는 성령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리아에게 사용하셨으므로,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1:35)고 하셨던 것이다. 그 “이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수태될 수 없었고,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었다’는 것은(눅.1:31), 또한 그가 그 이전에는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됨으로,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는 태아로 시작된 것이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외우고 있지만, 그 진의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수가 “독생자”인 것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었을 때에 시작된(begotten은 begin의 어원에서 생긴 것이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예수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그의 아버지는 그보다 늙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므로(시.90:2),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학습 8에서 이 점에 관해 부연하고 있다).

예수가 아담과 같이 독창적으로 창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가 되었다는데 오히려 의미가 있다. 이것은 예수와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것이다”(고후.5:19). 그리스도가 단지 흠에서 피조되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being begotten - 독생하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사들을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적성을 타고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에는 예수께서 성취하신바(요.8:12),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예

예수의 기원 5

언이 포함되어 있다(사.49:5-6). 그는 “태에서부터 자기를 주의 종으로 지었다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묘사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자궁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마리아의 자궁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육체가 시작한 곳이다.

학습 7.1에서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생각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였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낄 때부터 주께 맡긴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시.22:9-10). 이같이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하였다.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아서, 그의 모친 마리아의 자궁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복음서에 있는 마리아에 관한 묘사 그 자체로서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마리아는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보통 여인이었다. 이것은 침례자 요한을 낳은 그녀의 사촌 자매 엘리사벳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눅.1:36).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로마 카톨릭교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가 없다. 신약성서에는 예수에게 “인자(人子)”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하였다. 그가 인간인 모친을 가졌다는 것에서 “인자였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리아가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면,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마력은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아닌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욥.14:4; 15:14; 25:4). 이것은 마리아나 예수나 사람은 모두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인간의 양친에게서, “일반 여인에게서 난” 여자였으므로, 우리의 깨끗치 못한 인간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예수의 잉태에서 그 육신성을 유전하여 출생케하였던”(갈.4:4) 것이다. 예수가 마리아라는 대행자를 통하여 출생하게 하였다는 그 자체로서 그가 그 출생 전에는 형체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Diaglott 역본에는 “여인에게서 생산되었다”(Having been produced from a woman)고 하였다.

복음서에는 자주 마리아의 인간성이 노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 지각이 없다고 적어도 세번은 그녀를 비난하였다(눅.2:49; 요.2:4). 그녀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였다(눅.2:50). 이것은 그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녀는 역시 보통 여인과 같이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녀의 아들이며 그 육신성을 함께한 자였지만, 그녀보다

6 예수의 기원

는 더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었다.요셉은 예수의 탄생 후에 그녀와 정상적 관계를 가져,여러 자녀를 생산하고 살았으므로(마.1:25),그녀도 자연히 정상적 주부로서 살았을 것이다.

신약성서에 그리스도의 “모친과 형제들에”관한 언급에는(마.12:46,47),그녀가 예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예수는 다만 그녀의 딸들이었다.그러므로 마리아가 동정녀로 남아있다가 하늘로 올리웠다는 카톨릭교의 교리는 성서의 근거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이다.그녀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성을 지녔었으므로,마리아는 늙어 죽었을 것이다.이것 외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요.3:13) 말씀에서 그것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인간성을 가졌다는 사실은(히.2:14-18; 롬.8:3) 그의 모친도 역시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7.3 야웨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위치

인간의 역사(歷史)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하나님은 그의 목적에 특별한 부분을 고안하시면서,그것을 앞뒤 생각 없이 한 순간에 결정한 것이 아니다.하나님은창조의 시작부터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다(요.1:1).그러므로 한 아들을 가지려는 그의 소원은 그 시작부터 그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구약성서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여러 양상들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선지자들의 예언들,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예표들을 통하여,구약성서는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다고 논증하였다.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한 아들을 가지시려는 그의 목적 때문이었던 것이다(히.1:1,2).하나님께서 여러 세대 동안 인간 역사를 허용하셨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다(히.1:2).구약성서에 기록된 것들과 같이,오래동안 사람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히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상권(至上權)과 그의 근본적 중요성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그러므로 비록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므로 육체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지만,그리스도는 그 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의 계획과 목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그리스도는 천사들 중의 한분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히.1:4-7,13,14).그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으로 있을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였으나(히.2:7),하나님의 “독생자”였으므로(요.3:16),천사보다 월등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우리는 성서에서 가르치는바,그의 존재 형체는 몸의 형체로 존재하였고,출생 전에 어떤 “영적 존재(spiritual being)”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예수의 기원 7

알리신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느니라”(벧전.1:20).

예수는 복음의 중심적 축(軸)이다.“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서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한 영에 의하여,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認定)되었느니라”(롬.1:1-4).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歷史)를 요약한 것이다:-

1. 그리스도는 구약성서에 약속되어 있었다: - 즉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2.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으로 출생하였다:
3. 그리스도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육신의 인간 생활을 하는 동안 온전한 성품을 나타냈다(성결의 영으로서):
4.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예지(豫知)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예지(豫知)를 가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적 존재로 있지 아니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의 계획으로 존재했던 것을 인식하게 되어, 그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지(豫知)’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는 사물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같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장래에 관한 전체를 예지하신다.“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이미 있었던 자들처럼 부르신다”(롬.4: 17).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종말(終末)을 처음부터 고(告)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計劃-counsel)이 설 것이니,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사.46:10)고 말씀하신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그 사람들에게 관하여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또는 그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것을 예언하셨다.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며, 그의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시작은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태어나기 전 어떤 때일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을 이루실 것이었다. 그러므

8 예수의 기원

로 하나님의 예지의 확실성이 그의 말씀에 확실하게 반영하였다. 히브리어 성서 문장은 ‘예언적 완전 시제(prophetic perfect tense)’ 용법이라는 특별한 시제(時制)로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 일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성전 건립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에 “이는 야웨 하나님의 전이라”고(대상.22:1) 말하였다. 다윗이 장래의 성전을 묘사하는데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예지(豫知)’의 실례들로 가득차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하시며,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을 때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창.15:18) 말씀하셨다. 그 자식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하나님은 더 많은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창.17:5). 참으로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비록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는 받지 못하였으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느니라”(요.3:35)고 하셨다.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도다”(히.2:8).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은 그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눅.1:70)고 하셨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였지만, 선지자들은 그것들이 시초부터 실제로 있는 것같이 말했던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적합한 그 실례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1:5).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지음을 받기 전에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아셨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사왕에 대하여,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사.45:1-5). 히브리서에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같이 말한 또 하나의 다른 실례가 있다: “또한 십분의 1을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7:9-10).

예레미야에게 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태어나기 전이라도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와 같이 신자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외에는 육신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딤후

예수의 기원 9

후.1:9)고 하셨다.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엡.1:4,5).하나님께서 그 시초부터 우리 각사람을 예정하신다는 생각과, 그리고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존재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롬.8:27; 9:23).

이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볼 때에,하나님의 계획의 요약인 그리스도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지만,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그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계.13:8).그 때에 예수는 실제로 죽임 당하지 아니하였었다.그는 4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희생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요.1:29; 고전.5:7).그와 같은 식으로, 예수는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었고(벧전.1:20), 신자들도 그와 같이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다(엡.1:4).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계(時間界) 밖에 계시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믿음은’ 시간의 제약이 없이,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7.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이 구절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게 되면,그 결론을 확인하고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이 구절은 가장 널리 곡해되고 있는 것으로,예수가 그의 출생 이전에 하늘에 존재하였다고 가르치는 구절이다.이 구절의 올바른 인식은,그 문맥에 있는 “말씀”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달려 있다.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하나님 또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그 낱말은 직접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우리 말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logos)”,“도(道)”, 혹은 “말씀” 그 자체는 “예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절대 없는 것이다.그것은 통상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다음과 같이 그것의 의미를 요약해 보았다:-

평가(評價). 원인(原因). 교신(交信). 교리(敎理).

전도(傳道). 이유(理由). 의도(意圖). 말. 소식(消息).

그 낱말 ‘Logos-로고스’는 남성(男性)이므로,“그이(He)” 로 밖에는 쓰일 수 없다.그러나 이것은 남성인 예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루터 역본에는 “das Wort”로 중성(中性)으로 되어 있고,프랑스어 역본 *second*에는 “*l a parole*”로 여성(女性)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 낱말 ‘로고스’는 반드시 남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

10 예수의 기원

다.

“태초에”

그 낱말 “로고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언어와 다른 매체를 통하여 밖으로 표현하는 마음 속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를 가지셨던 것이다. 이 목적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작용하는 것, 그의 영과 말씀이 연합되는 것(학습 2.2를 보라)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작용하여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영감했듯이,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에 전달되어 그 말씀이 작용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많은 구약성서 사건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인 그리스도는 그 “말씀” 자체가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 또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었던 것이다. ‘로고스’,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자주 사용되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골.3:16; 마.13:19; 요.5:24; 행.19:10; 살전.1:8 등등과 비교해보라)고 하였다. 로고스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계획인 것을 주목하라.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에, 이 “말씀”은 혈육으로 변화였던 것이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요.1:14). 인간인 예수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신 분이였다”. 그 예수는 이전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통하여 출생하셔서 그 말씀이 되시고 그것을 완성하셨던 분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계획과 목적, 또는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1세기에 세상에 출생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도라는 형식으로 비로소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바울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萬有)의 후사(後嗣)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世代)를 (arranged)- 지으셨느니라”(히.1:1,2)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 말씀-로고스를 그리스도가 말하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들을 행하시며 거듭하여 그 말씀-계획을 강조하였다(요.2:22; 3:34; 7:16; 10:32, 38; 14:10, 24).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만민에게” 전도하라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은 창세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고, 알게 하신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라”고

(롬.16:25,26; 고전.2:7과 비교해보라) 하였다.

그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work)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였다(요.3:16; 6:53). 예수께서 드리셔야 하실 그 제물을 아셨던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영생은 오직 예수의 출생과 죽음 후에 완전히 계시되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딤후.1:2-3).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의 비유의 말씀은 이것들을 밝히 나타냈다. 그것으로 그는 그에 관한 예언들을 성취하였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을 말하리라”(마.13:35).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출생을 말미암아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다. “나는 서울에 가련다”는 것은, 그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내 목적을 표현한 말 또한 공포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니라”(잠.23:7).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의 생각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서에는 대구법(對句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시.29:8). “야웨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어, 야웨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야웨의 말이니라”(렘.25:7). 이와 같은 선포는 “너희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밝히는 그의 등(燈)으로서 그리고 빛으로서 여겼다(시.119:105). “야웨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웨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삼하.22:29).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대구법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신으로 의인화한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말한 것이다(변론:5의 의인화의 원칙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다(요.3:33; 8:26; 요일.5:10).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이다(요.17:17). 유사한 방법으로 예수는 그의 말씀을 의인화하여 그 자신과 일치시켰다: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12 예수의 기원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요.12:48). 예수는 그의 말을 실제 사람과 같이 여기며 말한 것이다.그 말이 예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그것을 의인화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으로 의인화되었다.예를 들자면, 요.1:1-3에서와 같이,하나님 자신으로 하신 것이다.우리는 “만물이 그(말씀으로)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다”고 그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명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창.1:1).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됨으로,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개인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해진다.만물을 지으셨다고 묘사된 것은 개인적 그리스도가 아니고,그 말씀이었다(요.1:1-3).“야웨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그 만상(萬象)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저가 말하시매,이루었도다”(시.33:6,9).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니,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시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그것들을 녹이시고,박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시.147:15-18).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므로,그는 그것을 마리아의 자궁에서 예수가 생기도록 사용하셨다.그 말씀 곧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작용하게 하셔서(눅.1:35),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잉태할 소식을 환영하고 그것을 인정하였다.“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눅.1:38).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영이 그의 목적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그것은 구약성서 전체를 통하여 말씀해오신 것이다.구약성서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게 예수는 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행.13:27).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에,하나님의 모든 말씀/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나타냈다.영감으로 사도 요한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제자들이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았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고 무척 기뻐하였다.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만져보았다고 인정하였다(요일.1:1-3). 그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볼 수 없지만,우리 또한 그에 관한 참된 지식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으며,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친밀하게 알 수 있어서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벧전.1:8,9).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옛날에 예수라는 선한 성인이 있었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아니하다.계속된 기도와 성서 연구로 당신의 구주로 그를 인식할 수 있

어야 하며, 침례를 통하여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각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 전에 ‘토라(Torah-모세의 오경)’가 존재했다는 유대적 개념을 적절하게 해설하고 있다. 요.1:1-3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이다(눅.1:70과 비교).

변론 22: 역사적 예수

만일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존재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 때에는 그리스도교의 그 존재를 설명하기가 난감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수천만의 사람이 세상에 결코 존재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을 근거하여 믿었으며, 그리고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그에게 격렬한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의 믿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교인들과 유대인들은 대체로 모하멧의 주장과 가르침은 거부하지만, 그가 이 세상에 살았었다는 것은 쉽게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의 유명했던 인물들을 그들이 존재했던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거침없이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가끔 널리 세상에 알려진 사건들에 관해 분석해 본다.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이 A.D. 1500년 경에 일어났는지 등등, 그것과 관계된 것이 해결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이다.

나사렛 예수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는 자들이 있던 사실은 예수의 메시아 직분에 감연히 맞서지 아니하려고 편리한 구실을 찾으려는 과잉 반응의 표시였다. 이것은 초기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이 1세기에 존재했었다고 인정할 때에 일어났던 사실이다. 나사렛 예수의 존재에 대한 다음의 역사적 증거들은 사람들의 신학 발견으로 결코 각하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 부분에 관한 많은 정보를 Gary Habermas씨의 저작품, “Ancient Evidence for the Life Of Jesus”에서 추려낼 수 있다.

1) 로마의 역사가 Tacitus는 1세기에 관한 두가지 중요한 책자(Annals와 Histories)를 저작하였는데, 모두 예수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었다. 그는 “Annals”(A.D. 115년)에서 이같이 기록하고 있다.

“디베료 가이사(Tiberius Caesar)의 통치시대,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가 유대 지방에 총독이었는데, 그곳 서민 대중이 그리스도(Christus)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인들(Christian)이라고 불리었다. 그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 계층에게 가증한 자라고 미움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극형을 받았었다”.

디베료 가이사는 A.D. 14년-37년까지 통치하였으며,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

14 예수의 기원

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Tacitus는 이 그룹의 신앙이 “유대에서 뿐 아니라, 그 사상이 로마로 번졌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미움을 받았으며, 그들이 많이 로마에서 처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의 그 가르침을 먼저 유대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로마세계로 전파하고 있었던 것을 기록한 신약성서의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2) 또 다른 로마 역사가 Suetonius는 가이사 클라우디오(Claudius- A.D.41년-54년)의 통치시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로마 당국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동을 받아 소동이 계속됨으로, 그들을 도성 밖으로 추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대인 부부가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로마를 떠났다고 한 것은 그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다 (행.18:2).

역사가 Suetonius는 나중에 네로(Nero)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로마의 그 큰 화재사건 후에, 치안에 유해하다고 생각된 한 새 종교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처벌이 자행되었다”. 이것은 1세기에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일찌기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성서학자 F.F.Bruce씨는 그의 저서 “Christian Origins” 에서, A.D.52년 경에 Thallus라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된 동지중해(東地中海) 역사에 관한 사실에 주목을 끌게 하고 있다. 그는 또 다른 것에서(The New Testament Document P.113) 제시하였는데, Julius Africanus라는 지질학자는, Thallus의 저서를 인용하여, ‘예수의 십자가 형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일식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Thallus의 기록한 ‘예수의 십자가 형은’, A.D.52년경에 기록한 그의 역사서 이전에 일어난 것을 제시하고 있다.

4) 로마제국의 행정관이었던 Pliny는, 1세기 말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존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그들의 만찬기념 예배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일정한 날 해지기 전에 모이는 습관이 있었다. 그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번갈아 불렀다”(Letters of Pliny Vol.2 X:96에서).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Trajan)와 하드리아누스(Hadrian) 모두가 그리스도인들 처리가 문제였다고 언급했으며, 그 “Letters of Pliny Vol.2 X:97과 Eusebius”의 “Ecclesiastical History IV:LX”는 각각 그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1세기 이래 이 그룹의 존재와 그리고 핍박 받는 동안에도 그들의 예외적 불굴성은 그들이 1세기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의 추종자들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5) 유대인이 거룩하게 여기는 책 탈무드 Sanhedrin 43a에는 예수의 죽음에 관

예수의 기원 15

해 말하고 있다. 그 탈무드의 이 부분은 그 책의 편찬(A.D.70년-200년) 초기 연대로 적혀있는 것이 그것을 인정한다: “유월절 저녁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다. 그 집행이 시작되기 전 40일 동안, 민중에게 호소하는 한 전문이 발송되었다. ‘그는 마술을 부려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까닭에 돌에 맞아 죽게돼 있었다. 누구든지 그를 지지하는 자는, 그를 대신하여 나서라’고 하였으나, 그를 지지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유월절 저녁에 그를 십자가에 달았다”.

신약성서에서 그 처형을 말하고 있는바, “나무에 달린 것이다”(갈.3:13; 눅.23:39). 죄수를 “나무에 달아” 처형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은 돌로 쳐죽이기를 원했으나(모세의 법에 따라서), 실제로는 나무에 달아 처형하였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을 이용해야 했던 것, -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이 신약서에 잘 묘사돼 있다. Sanhedrin 43a는 또한 예수의 다섯 제자가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으므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Sanhedrin 106b에는 신약서에 있는 그대로 예수가 죽을 때에 33세 쯤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Maier(“첫째 Easter”, PP.117,118)에는 5세기에서 유대의 “Toledoth Jesu”라는 문서를 인용하였는데, 그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가 죽은 후 그 시체를 훔쳐가려고 했다고 하였으나, 동산지기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그 계획을 듣고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겼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였다. 교부(敎父) Justin Martyr의 기록(A.D.150년)에는 유대인들이 특별한 메선저들을 보내어 예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게 하였으며(Dialogue with Trypho)와 그리고 Tertullian 교부도 그와 유사한 것(On Spectacle, 30)을 기록하고 있다(A.D.200년).

그들 간에 있는 이 증거의 가닥은 A.D. 초기의 유대인들이 역사적 예수의 존재와 그의 죽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6) 헬라의 희곡작가 Lucian은 2세기에 쓴 그의 희곡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처참하게 죽은 사람을 오늘날 예배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조롱하고 있다(Lucian, The Death of Peregrine, 11-13, “The Work of Lucian”, vol.4.) .

7) 유명한 유대 역사가 Josephus는 세계의 역사가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자이다. A.D.90년-95년에 씌어진 그의 저작물 “Antiquities” 에서,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또한 그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신약성서의 예수의 그림에 확증을 주는 상태로서 말하고 있다: “그 때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놀랄만한 공적을 세운 자이었다. ... 그는 그리스도였다. ...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이것들과 기타 수만의 놀라운 것들을 예언한대로 행하였으며,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었다”.

16 예수의 기원

이 구절들에 대하여, 어떤 자들은 그것은 하나의 개찬(改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세기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었다는 논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사용하는 이유를 고찰한 다음의 사항들의 제공으로서 밝히고자 한다:-

- 역사가 Eusebius는 그의 저서 (Ecclesiastical History, I:XI)에서 Josephus의 이 부분을 인용하였다.

- 존경 받는 학자들이 이 첫부분을 본래의 것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Josephus의 남은 작품과 같은 문체로서 기록됐다고 제시하고 있다(Daniel Rops, "The Silence of Jesus Contemporaries", P.21; J.N.D. Anderson, "Christianity: The Witness of History" P.20, F.F. Bruce, "The New Testament Documents" PP. 108, 109 참고).- 그것이 개찬(改竄)이라는 문서적 증거가 없다.

- Schlomo Pines 교수는 Josephus의 작품의 아랍판은 거의 그 본래의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상기의 참고한 구절이 나오지만, 발췌한 상기의 메시아 예수의 부활에 관한 분명한 문서적 서술은 없었다. 이것은 Josephus가 유대인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에 그렇게 했을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Pines 교수는, 그가 발견한 것을 처음 공개적으로 기사화한 것이 "The New York Times지" 1972.Feb. 12호에 게재되었다. 거기서 그는 아랍판에서 예수에 대한 Josephus의 논쟁점을 인용하였다. "그 때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의 행위는 선했으며 그는 도덕가로 알려졌었다. 유대인과 기타 여러 나라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총독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도록 선언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그 제자된 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가 죽은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전하여, 그는 선지자들이 그의 기사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고 하였다".

변론 23: “하늘로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이라” (요. 6:33, 38).

이 말씀과 이와 같은 다른 말씀이, 예수께서 세상에 나시기 전 하늘에 형체적으로 존재했었다는 그 부당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음 사항들이 그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주목하시기를 바란다:-

1. 삼위일체론자들은 그들의 논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예수의 기원 17

공중에 떠서 세상으로 내려온 것이 된다. 성서에는 이런 말이 전혀 없을 뿐아니라, 예수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돼 있었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못하게 한다. 제자들이 만나에 관한 가르침을 “그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토로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요.6:60). 즉 그것은 그들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야 했다.

2.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그 만나는 그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중에 둥둥 떠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 창조하여 주셨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하는바, 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눅.1:35) 마리아의 자궁에서 지음 받았던 것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3.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요.6:51)고 말씀하셨다. 삼위일체론자들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의 신적(神的)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성자(聖子)’가 아니고, “인자(人子)로서”(요.6:62), 그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과 관련돼 있다고 하셨다.

4. 요한복음 6장에 그와 같은 구절에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많이 입증하고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요.6:57), 이것은 예수와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요.6:57) 것 역시 그 삼위일체론자들이 말하는바, 그들이 동일하게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5. 예수께서 언제 어떻게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셨는가? 질문하고 싶다. 삼위일체론자들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의 출생 때에 하늘에서 내려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그 구절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하나의 진행 과정으로 그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요.6:33,50)고 말하고 있다. 예수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말하면서,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요.6:32)라고 그리스도는 말하였다. 예수가 그 말씀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아, 확실하게 이미 ‘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 문장에서 과거형을 사용한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요.6:51). 그러나 그는 또한 십자가에서 죽는 형체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요.6:51).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떡’,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려오게 될 떡’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 뿐아니라, 그 ‘내려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현현에 관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성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이 지니는 의미를 입증하는 최종 결론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8 예수의 기원

서 그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 오셨다’. 그는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내도록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 오셨다’, 또는 그 자신이 현현(顯現)하셨다.

변론 24: 예수가 땅을 창조하였는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골.1:15-18). 이 구절은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가 실제로 이 땅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1)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께서 그의 출생 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가르침의 다른 많은 구절이 모순이 될 것이다. 창세기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였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예수와 하나님 두분이 다 그 창조주였다고 한다면, 예수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창조주였으므로,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과 예수 간에 차이를 증명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은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다(이것을 위하여 설명하고 있는 학습 8.2 를 보라).

2) 예수가 “장자(長子)라”고 한 것은 그가 시작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실제로 땅에서 지음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증거가 없다. 삼하.7:14 과 시.89:27 과 같은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장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는 그 구절들이 기록될 때에 명확하게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창세 때에 당연히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롬.1:4).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행.13:32,33)고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우편에 서있는 아들은 그의 장자인 것과(창.48:13-16),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에(행.2:32; 히.1:3) 주목하라.

3)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 장자가(골.1:18) 되었다는 것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골.1:15)고 한 구절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

예수의 기원 19

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계.1:5; 3:14)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들을 생산하는 그 새 창조의 시작이었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생한 자녀로서 온전히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엡.2:10; 4:23,24; 고후.5:17).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참된 신자들)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니라”(고전.15:22,23). 이것은 골로새서 1 장의 생각과 같은 것이다. -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 영생을 받았고, 새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 신자도 그의 재림 때에 그의 본을 받아 일어날 것이다.

4) 그러므로 골로새서 1 장에 있는 창조는 창세기의 그 창조가 아니고 그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 “보좌 주관자들 등등,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바울은 예수께서 만물 즉 산천 초목 동물과 새들 등등을 창조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한다. 그 새 창조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 받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좌, ...주관자들, ...등등은 그 부활한 자들이” 제왕들과 제사장들로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계.5:10). 이것들은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느니라”(골.1:16).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하늘에 앉아 있는 것으로”(엡.2:6) 묘사돼 있다. 이와 같이 이 구절들은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되겠지만, 지금 가질 수 있는 높임 받는 영적 지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하늘과 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이 필요했던 자들을” 내포하고 있는바(골.1:16,20),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大氣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운 자들” 신자들이다..

변론 25: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 구절은 예수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는 것으로 그릇 적용하고 있다. 그 문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해진다.

1) 예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말쑤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되었으므로, 그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때 이전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터무니 없는 말이 되고 말것이다.

2)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의 문맥은(요.8:58) 아브라함에 관한 유대인들과의 그리스도의 논쟁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예수는 “나, 지금 너희 앞에 서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거기에 서있던 그들에게,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더 존경해야 할 사람

20 예수의 기원

이었다. 그는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 구절에 있는 “전부터라”는 때에 관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예수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으로 그가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3) 그것에 관한 입증은 요.8:56에서 찾아낼 수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웃으며 기뻐하였던 때는 오직 그가 자손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였다고 기록돼 있다. 그는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창.17:17). 아브라함은 예수에 관하여 그에게 약속했던 것을 통하여 장차 있을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었다”. 그는 장차 있을 예수의 회생에 대하여 은밀히 논평하였다. “야웨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창.22:14). 그것은 예수가 아브라함을 본 것같이 그에 관해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다. 예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느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약속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 문맥이다. 그는 우리가 학습 3.1에서 설명했던것 같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의 시작부터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바, 예수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나타냈었고, 1세기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주위에 둘러 서있는 그 유대인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성취되고 있었다.

4) 영어 역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Before Abraham was I am -요.8:58) 는 문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I am that I am)”를 언급하였다고 하며, 예수가 “야웨 하나님이라”고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야웨라”는 낱말은 히브리어 “Yahweh Elohim”으로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출.3:14) 의미이며, “I am that I am 이” 아니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웨”를 칭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예수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변론 3에서 설명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구절에서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말했을 뿐이다. 그런 헬라어 구성은 그 몇절 후에, 요.9:9 에서도 나온다. 고침 받은 그 소경의 이웃들이 ‘네가 참으로 그 못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말은 “내가 그로라(I am he)”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던 것이다’. 그 소경이었던 자가 “내가 그로라”(I am he)고 말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I am)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요.8:58).

변론 26: 멜기세덱

많은 성서 연구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에 다음에 인용한 그의 말에 대하여 진정으로 ‘아멘이라’고 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서와 같이 그것도 역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3:15,16). 이것은 확실히 히브리서에 기록된 멜기세덱에 관한 바울의 해설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는 그 의미를 오직 성숙한 형제들만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오묘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였다(히.5:10,11,14).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절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기본적 근본 교리가 아니다. 또는 멜기세덱의 구절은 아직도 성서의 기본 교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의미가 모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하고,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히.7:1-3)고 하였다. 이것에서 예수는 문자 그대로 그의 출생 전에 존재했으며, 인간의 부모가 없는 자라고 논쟁을 벌인다.

예수는 아버지(하나님)와 어머니(마리아)가 있었으며 족보가 있었다(마.1장; 눅.3장 그리고 요.7:27을 비교하라). 그러므로 ‘멜기세덱’을 인간적으로 예수에게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는 것이다”(히.7:3). 멜기세덱은 그 출생이 예수와 같은 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제사장직은 예수와 유사하다는 것을 저자가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히.7:11)고 하였다. “멜기세덱과 같은 - 유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라”(히.7:15). 예수가 제사장직을 가지려면 레위 족속으로 출생해야 하는데, 그는 유대 족속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다.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에 관한 글은 문자 그대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 만일 멜기세덱이 문자 그대로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그 자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시작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딤후.6:16; 시.90:2). 그러나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히.7:4)고 하신 말씀과 또한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졌고(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만일 그가 사람이라면, 부모가 있어야 한다. 그의 존재가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었다”고 말한 것은, 그의 족보와 부모가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일 것이다. 에스더의 부모에 관한 기록이 없었으므로, 그녀의 배

22 예수의 기원

경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묘사되었다.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는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에.2:6-7).

창세기에는 대체로 모든 인물의 가계를 길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의 부모에 관한 기록도 없고,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잘라버리고, 아무 것도 공포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선뜻 나타났다. 그러나 그 위대한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 십일조를 받치고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아, 그가 대단히 존경 받을만한 가치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 없다.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상위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히.7:2,7).

바울은 성서로서 정신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세기 당시 바울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멜기세덱에 관한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에 관한 바울의 견해에 대하여 크게 비난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당신네들은 그 예수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며,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역사(役事)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의 가계(家系)가 잘 알려진 레위족속으로 입증돼야 하는 것을 당신네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네들은 예수가 유대족속에서 나왔다고 하니 어찌된 것인가?(히.7:14). 그가 어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 미안하게도 우리는 그런 가계도 뚜렷지 아니하는 대제사장은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만이 우리의 최고 인도자이며 본(本)받아야 할 분이라고 믿고 있네(요.8:33,39).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제사장으로 모실 수 없고 존경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바울의 대답:-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창세기의 기록은 그런 위대한 대제사장은 어떤 가계(家系)가 없었던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 주되시는 예수는 대왕과 대제사장이신 메시아로, 그의 제사장직은 기계(家系)에 있어서 멜기세덱의 본을 따른 것이다(히.5:6; 시.110:4과 비교).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낮은 자이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아브라함이 예수보다 높다는 역설(逆說)을 바꿔야 하며, 그리고 가계를 중요시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런 인간의 전통이나 끝없는 족보에 착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는 것이다(딤후.1:4을 보라). 만일 당신이 멜기세덱이 예수의 예표인 것을 묵상해본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 각자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교훈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하자.

학습 7: 학습 문제와 해답

1. 예수에 관한 구약성서 예언 두가지를 나열하라.

2. 예수께서 그의 출생 이전에 육체적으로 존재하셨는가?

3. 어떤 의미에서 예수가 그의 출생 이전에 존재했었다고 말하는가?
 - a) 천사로 있었다
 - b) 삼위일체의 한 분이였다
 - c) 영으로 있었다
 - d)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의 계획으로 있었다
4. 다음 중 어느것이 마리아에 대한 바른 생각인가?
 - a) 그녀는 온전하며 죄가 없는 여인이였다
 - b) 그녀는 하나의 보통 여인이였다
 - c) 그녀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잉태하였다
 - d) 그녀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 기도 드리고 있다
5. 예수께서 이 땅(earth)을 창조하셨는가?

6.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3)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한 그것이 의미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인가?

7. 예수가 그의 출생 전에 육체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